

인기를 끄는 개성고려인삼전시장



인삼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무병장수하게 하는 보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다.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모양이라는 데서 지어진 이름인데 산에서 자라는것을 산삼이라고 하며 재배하는것을 인삼이라 불리고있다. 인삼은 강장, 면역기능향진, 조절기능강화,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기능강화 등의 작용을 하며 단백질과 지방산의 생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량을 낮추며 열물분비를 촉진시키는 등 물질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는것으로 하여 옛날부터 특효약재로 이용되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인삼재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특히 풍토와 기후 등 자연지리적조건이 인삼재배에 적합하고 상업이 발전한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여온것으로 하여 《고려개성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한다. 평양의 보통강반에 자리잡고있는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은 이처럼 이름난 개성인삼을 가지고 만든 갖가지 제품들을 봉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전시장에는 개성고려홍삼가루, 개성고려인삼생강차, 개성고려인삼마차, 개성고려인삼커피, 개성고려인삼술, 개성고려인삼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있다. 이곳 봉사원들의 말에 의하면 적지 않은 제품들이 이미 국내외는 물론 여러 국제상품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전시장에는 여러가지 특색 있는 음식들을 봉사하는 식당도 있다. 주로 인삼담과담과 삼계탕, 인삼백김치, 인삼탕알고기찜, 인삼차 등 인삼을 리용하여 만든 갖가지 요리들과 음료들을 봉사하고있는데 그 맛이 독특하고 효효과가 뛰어나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호평받는 기능성화장품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호는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여성들은 화장품이라 할 때 무엇보다도 보습성이 좋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여성들은 자기의 얼굴을 갖난나이의 피부처럼 맑고 부드럽게 해줄 화장품을 찾는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성들속에서는 검버섯이나 주근깨, 주름같은것을 없애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최근년간 공화국의 함련기술교류소에서 화장품에 대한 여성들의 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드름제거살결물과 미백살결물, 주름제거물크림, 자외선방지분포크림, 스르플러나세수비누를 연구개발하였다. 교류소에서 개발한 기능성화장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다. 미백살결물을 사용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보습성이 좋은데다가 이상하리만큼 피부가 투명해지고 검버섯과 주근깨같은것도 점차 없어진다고 말하고있다. 함련기술교류소에서는 살결물의 미백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세계화장품공업계에서 기록의 물질로 인정되고있는 과일산과 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독특한 화장품제조방법을 적용하였다. 미백살결물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주름제거물크림도 사람속에서 널리 알려진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등을 함유하고있어 오래동안 사용하면 잔주름뿐 아니라 굵은 주름까지도 제거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함련기술교류소에서는 여성들의 피부가 야외의



조식식탐 건축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담건축술에 관한 건축술의 총체로서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식의 옛담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나무와 돌 등 건축재료에 따라 나무담, 돌담 등으로

조선식탑건축술

구분되는 조식의 옛담들에 적용된 건축술은 고구려에서 창조되고 완성되어 백제와 신라는 물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의 담건축술발전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선식탑건축술은 초기



묘향산 보현사의 8각13층탑

역사문화유적의 주의 통군정

외적과의 싸움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였다고 하여 의주라고 불리우는 평안북도 의주군의 주의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어린 력사유적들이 많다. 그중에는 건물의 구조와 형식이 장쾌하면서도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전해져 온 통군정도 있다.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워진 통군정은 의주성의 북쪽장대로 세워진 무지이다.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북쪽 삼각산봉우리에 위치하여 그대의 압록강과 근방일대를 내다보며 군사지휘를 하기 좋게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지금의 통군정은 1478년에 개건한것이며 그후 1538년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보수하였다. 보통 무정은 정면의 간수보다 측면의 간수를 적게 하고 정면의 간수를 홀수로 하는데 통군정에서는 정면과 측면의 간수를 다같이 짝수인 4칸으로 한것이 특이하다. 정면 4칸(14. 41m), 측면 4칸(11. 85m)으로 짜고 한간너비와 무정의 복판에 T형평면으로 마루를 깔았다. 무정에는 홀림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꽃가지형제공을 갖춘 2의공식두공을 얹었다. 화반의 형식은 꽃무늬로 하였으며 측면은 넓게 하면서 7도리집으로 하고 집안은 통천정으로 시원하게 띄어놓으면서 대들보를 겹으로 놓았다. 대들보우에 동자두공을 놓고 중보우에 화반대공을 놓는 등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다. 지붕은 박공붕이 넓은 겹처마의 합자붕으로 하여 건물외의 웅장성을 돋구었으며 건물전반에 모루단청을 입혀 그 품위를 높였다. 통군정은 우리 민족의 무정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단편소설 가족 사진 (2)

글 김승기, 그림 리성일

광천리는 립산지구인 성흥로동자구와 한마장거리로 이웃해있다. 사진을 찍으러면 거기에 있는 사진관에 찾아가도 된다. 그런데 부디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영만은 이러한 속궁냥을 읽은 채 손님이 또 이야기의 발을 들었다. 《이왕이면 우리 어머니 80쪽 생일사진을 좀더 잘 찍어드리고싶어서...》 영만은 약간은 멧적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정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꼭 자기에게 사진을 찍고싶다는 말이었다. ...영만은 유능한 사진사였다. 벌써 30년 가까이 사진사로 근무하는 오랜 사진사인만큼이나 사진사라도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사진가 동맹의 어엿한 맹원이다. 그가 이렇게 사진사동맹의 맹원으로 되게 된데는 그의 사진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적지 않은 을 냈다. 남다른 예술적완상과 예리한 구도감각, 여러가지 빛에 대한 능숙한 활용능력을 갖춘데다가 사진현상기술까지 높아 그는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된 사진전람회에 여러번 좋은 작품을 내놓아 당선된 경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니 이

가도록 많고 음식도 제 집에서는 미처 다 마련하지 못하였는지 이 집, 저 집에 시키어 달라들이는 모양이다. 몸매 가느다란 어떤 녀인은 절편을 한소랭이 가득 담아놓고 오는가 하면 또 어떤 녀인은 분명 음식이 들어있을것같은 꾸미고 안고 뚝뚝한 몸을 흔들면서 《아유, 내가 늦지 않았나?》하고 딸까지 뺨뺨 흘리며 부엌에 들어선다. 이젠 해도 너무했다. 《엇참, 일단 보고는 나무를 못 그린더니...》 영만은 어제 비비리는 20리 길을 몸이 뻘뻘 젖어 찾아왔던 이 집주인을 어머니 영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군. 이런 효자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랴! 영만은 선선히 약속을 했다. 《매일 점심녘에 도착하면 되겠지요?》 영만이 이렇게 말하니 젊은 손님은 날듯이 기뻐했다. 《그러므로, 광천리 3번에 와서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김명후라고...》 자기 이름이 《김명후》라고 소개한 그는 광천리 3번에 와서 큰 추리나무가 세그루 있는 집을 찾으면 된다고 자초지종 길까지 설명해주었다. ... 영만은 그래서 바로 이 집에 왔다.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의 그 마음이 사진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려고 매일 아침 하려던 사진제작업까지 밤도와 해제끼고 음용장을 거쳐 여기로 온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집의 광경이란 참... 글썽 잔치집이야 흥성거리 나뻐졌이 없고 인문대사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뒀 할것이 못된다. 그러나 그것도 웬간해지지 지금 이 집처럼 요란해진다면 사회주의사회의 새로운 풍속파는 너무도 거리가 먼것이었다. 청해들인 손님들이 집이 러져나



본사기자